



사라질-사라지고 있는-아름다움 더럽혀지지 않는 흰 것에 대하여

광주·전남이 읽고 톡하다
2017 한 책 한강 ‘현’ 선정



“삶은 누구에게도 특별히 호의적이지 않다. 그 사실을 알면서 걸을 때 내리는 진눈깨비. 이마를, 눈썹을, 뺨을 물큰하게 적시는 진눈깨비.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걸을 때, 안간힘을 다해 움켜쥐어온 모든 게 기어이 사라지리라 결심하면서 걸을 때 내리는 진눈깨비.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닌 것. 얼음도 아니고 물도 아닌 것. 눈을 감아도 따도, 걸음을 멈춰도 더 빨리해도 눈썹을 적시는, 물큰하게 이마를 적시는 진눈깨비.” (‘현’의 ‘진눈깨비’ 중에서)

한국인 최초 맨부커상을 수상한 광주 출신 한강의 소설 ‘현’은 한 권의 시집으로 읽어도 무방할 만큼 잔잔한 울림을 주는 작품이다.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절대로 더럽혀질 수 없는 어떤 흰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수사처럼, 소설은 밀도 있는 완성도를 자랑한다.

한강의 ‘현’(난다)이 밤·시도민 독서운동 ‘광주·전남이 읽고 톡하다’(이하 ‘광주·전남 독’) 2017 한책으로 선정됐다. 전남대는 올 한 해 시·도민이 함께 읽고 토론할 한 책으로 한강의 ‘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대, 올 한 해 시도민이 함께 읽고 토론

콘서트·문학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지난 2016년 5월에 완성한 소설 ‘현’은, 한 작가의 이전 작품 광주의 오월을 그린 ‘소년이 온다’를 연상케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소년이 온다’를 읽었던 독자라면 ‘현’이 내재하고 있는 의미와 겹쳐 사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이 도시의 사람들이 그 벽 앞에 초를 밝히고 꽃을 바치는 것이 낯들을 위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안다. 살육당했던 것은 수치가 아니라고 믿는 것이다. 가능한 한 오래 애도를 연장하려 하는 것이다.”

전남대는 지난 3월 한책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정된 후보도서 5권을 대상으로 4월 3일부터 30일까지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총 2만4847명의 지역민이 참여, 이 가운데 ‘현’이 5860표(23.62%)로 1위를 차지했다.

한책으로 선정된 ‘현’은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를 무력하게 만들 만큼 ‘사라질, 사라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다. 소설 전체가 다 작가의 말이라고 작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작품은 한강의 소설에 관한 모든 것을 엿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소설은 모두 65편의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한 편 한 편의 이야기는 모두 ‘흰 것’으로 표상되는 소재들로 엮여 있다. 강보, 배 내옷, 각설탕, 입김, 달, 쌀, 파도, 백지, 백발, 수의, 진눈깨비, 눈보라 등... 작가로부터 불려나온 흰 것의 목록은 총 65개의 이야기로 파생된다. 각각의 이야기는 ‘나’와 ‘그녀’와 ‘모든 흰’이라는 세 개의 부제 아래 편입된다. 한 권의 소설이지만 흰 것의 목록들 아래 각각의 이야기들이 수렴되는 양상을 보인다.

소설의 서사는 간명하다. 주인공인 ‘나’에게는 죽은 어머니가 스물 세 살에 낳았다 태어난 지 두 시간 만에 죽었다는 사연이 있다. 나는 지구의 반대편의 오래된 한 도시로 옮겨온 뒤에도 자꾸만 떠오르는 오래된 기억들에 사로잡힌다.

나에게서 비롯된 이야기는 ‘그녀’에게로 시선이 전이된다. 주인공은 그녀가 자

신 대신 이곳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통해 세상의 흰 것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 “죽지 마. 죽지 마라 제발. 그 말이 그녀의 몸속에 부적처럼 새겨져 있으므로.”

‘현’의 세계에서 끌어올린 서사는 넓고 깊다. 섬세한 감각으로 예리하게 전개한 사유는 차가우면서도 뜨겁다. 조각보처럼 이어진 각각의 소재는 ‘흰 것’이 상징하는 의미에 수렴된다.

흰 것을 떠올리고, 불러내고, 글로 형상화하는 작업은 흰 것을 매개로 상처와 아픔에 쌓여 있는 많은 이들에게 치유를 선사한다. “환부에 바를 흰 연고, 거기 덮을 흰 거즈”로 상징되는 장치는 소설의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내는 것 같다.

‘현’은 연말께 영국에서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가 이번에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 도서관은 조만간 작가 초청 한책독 콘서트, 한책 문학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3일에는 한책선정위원회 2차회의를 열어 ‘한책’과 함께 읽을 동반도서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 062-530-353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호남 하모니카 교류회 화합의 연주회

‘하모니카를 닮은 사람들’

27일 광주교대 교육매체관

어릴 적 누구나 한번쯤 불어봤을 하모니카는 추억이 함께하는 악기다. 하모니카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해온 광주·전남과 부산·경남의 하모니카 연주자들이 영호남 화합의 연주를 들려준다.

‘광주·전남 하모니카 닮은 사람들’(회장 김상복, 지도 김선호)과 부산·경남 지역의 ‘화음정’(和音情·회장 김익환, 지도 김병섭, 이대웅)이 27일 오후 5시 광주교육대 교육매체관에서 영호남 하모니카 교류회를 갖는다.

‘광주·전남 하모니카 닮은 사람들’은 2002년 하모니카마를 광주·전남 모임에서 출발, 2015년 현재의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재능 기부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음정’은 부산·경남 지역 동호인들의 모임으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일본 간사이 하모

니카 연맹 교류회 등 다양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두 단체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광주(의재미술관)와 창원(창원도서관)에서 교류 연주회를 열었고 이번엔 세번째 합동 연주회를 마련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독주는 물론, 하모니카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며 색다른 무대를 선보인다. 연주 레퍼토리는 ‘축배의 노래’, ‘봄날은 간다’, ‘연인이여’, ‘즐거운 여행자’, ‘영영’, ‘신아리랑 멜로디’, ‘임을 위한 행진곡’, ‘요들송과 함께’, ‘비틀즈 메들리’, ‘아바 메들리’ 등이다. 김유경·김은경·선정희·김종철·김은선·김난화·이대행·조광운씨 등이 연주한다. 마지막 곡은 전체 회원이 함께 연주하는 ‘7080 메들리’다.

cafe.daum.net/harmonica-yh. 문의 010-3635-22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송란 가야금 병창 ‘춘향가’

25일 국악전수관 전석 초대

가야금 연주자 송란(사진)씨가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목요열린국악한마당 무대에 선다. 25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송 씨는 이번 공연에서 산조, 단가, 가야금 병창 등을 선사한다. 첫 곡은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가 장식하며 단가 ‘죽장망해’가 이어진다.

하이라이트는 가야금 병창으로 들려주는 ‘춘향가’다. 송씨는 판소리 ‘춘향가’ 중 이몽룡이 춘향을 멀리서 처음보고 책실로 돌아와 천자문을 읽는 대목, 백년가약을 맺고 정담을 이루는 사랑가, 뜻하지 않은 이별 후의 이기인 기생점고와 군로사령, 떠난 임을 애절히 그리는 춘향의 갈까부다 등 ‘눈대목’들을 들려준다.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졸업 및 동대학원을 수료한 송씨는 (재)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가야금병창단 별밭가얏고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해가야금대회, 전주대사습놀이 및 국립국악원 주최 대회에서 수상한바 있다. 장단은 박시양(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전수조교)씨가, 사회는 김혜진씨가 맡는다. 전석 초대.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니스트 범영숙 ‘우리 아이 음악 교육, 피아노교육’ 발간

전남대 등 대학에서 후학 양성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운 클래식 음악은 아이의 삶 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얻은 감각은 삶의 다른 분야에서 다양하게 작동하지요.”

전남대 등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피아니스트 범영숙 교수가 최근에 ‘우리 아이 음악 교육, 피아노교육’(음악춘추)을 발간했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가정이나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음악적 환경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 아이의 일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기음악교육이 사실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한다.

저자는 “천부적인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소위 ‘천재’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부모가 만들어준 환경이 특별한 경우가 많다”며 “몸과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인 그 예술적 자양분은 평생 동안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빛을 발한다”고 강조했다.

책에는 “행복해지는 음악 공부”, “음악과 뇌의 발달”, “아는 만큼 들리는 음악”, “아이에 맞는 악기”, “피아노는 몇 살 때부

터 가르칠까” 등 모두 36편의 글이 수록돼 있다. 아이를 둔 부모라면 궁금해하는 ‘음악적 주제’들이 엮여져 있어 친숙하게 다가온다.

저자는 시간이 변하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이의 음악교육은 교실이 아닌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꾸준한 음악교육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요구들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게 한다고 덧붙인다.



김정원 피아니스트는 추천의 글에서 “피아노 교육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범영숙 교수님과 오랜 친분을 쌓아오면서, 그 변함없이 성실한 연구 자세와 교육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에 늘 감탄하고 있었다”며 “이 책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음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저자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대학에서 피아노연주와 교육을 전공했으며 빈 슈베르트 콘서바토리움 교수를 역임했다. 뉴서울 필하모니, 광주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수많은 연주를 했으며 ‘해설이 있는 피아노집’, ‘즐거움 바이엘’ 등 많은 교본과 번역서를 출간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주창동 전월당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